

함평군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 전면 시행

오는 16일부터 등·초본 등 카드결제 가능

함평군이 오는 16일부터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에 대한 카드결제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5일 군에 따르면 기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가 이달 16일부터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대부분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가 1천 원 미만인 것의 경우 1천 원 미만의 소액도 결제 가능하다.

결제는 종류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면 가능하며 결제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류다.

군은 내년부터 함평읍을 포함한 9개 읍·면 전역에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를 확대·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개선시책을 발굴해 고객 감동 행정을 펼쳐겠다”며 “민원행정을 포함한 군정 전반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탄없이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영암군, 축산기술보급 도단위 중간평가회 현장방문

기후변화 대응 쾌적한 환경조성 가축 생산성 개선



영암군은 3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지속가능한 축산 활성화의 경영역 향상을 위한 2019년 축산 기술보급 도단위 평가회의 참석자들이 영암군 관내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전남도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 및 미생물 담당자들과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 고려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2019년 축산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시군별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상황 보고, 개선 방안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시범사업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영암군 도포면의 한우농가를 방문하였는데, 이 농가는 폭염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온습도컨트롤러, 물분자의 기화로 온도를 낮추어 생산비 절감 효과를 특목히 보고 있는 중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염 등의 기후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개선을 통해 농업소득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장흥군, 농업기계 안전사용교육 ‘호응’



장흥군은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기화기점검 등 농업기술센터에서

터 임대사업소에서 귀농인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동력예초기 분해조립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예초기 교육은 예초기 분해조립뿐만 아니라 작동 시 눈이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호기 착용 등 안전교육에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

교육을 참석한 한 농업인은 “동력예초기는 사용 후 방치하여 시동이 안 걸려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안전사용요령을 숙지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에서 꼭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9일에는 관리기 안전사용교육을, 16일에는 농업용 굴삭기 이론 교육 및 안전사용 조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용굴삭기 조종사면허증 교육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에 읍면농업인상담소에서 접수를 받아 11월에 교육일정을 잡아 교육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에 많이 사용하는 관리는 안전점검과 작동요령, 도로 주행시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농용 굴삭기는 직접 굴삭기에 올라가서 조작을 실시하여 안전사용요령을 숙지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군, ‘청소년 5일 금연교실’ 운영

무안군은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금연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청소년 5일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보건소의 협력으로 실시되는 금연교실은 총 5회에 걸쳐 게임과 토의 방식으로 실시되며 흡연에 대한 유해성과 건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등 금연의지를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일산화탄소 및 소변 내 니코틴측정, 폐활량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등 개인별 금연상담과 흡연 자기조절 효능감 향상을 위한 금연서약서를 작성하여 흡연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흡연 방지를 위해 금단 증상 극복방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문자메시지(SMS)와 전화 등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 및 건강생활습관을 기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강진청자축제’ 추진상황보고회 가져



강진군이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47회 강진청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축제 개최 전 행사 전반에 걸쳐 점검·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진행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단위행사별 해당부서의 추진실적 보고 및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승욱 군수는 “여름에서 초가을로 옮겨 개최되는 청자축제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강진군은 행사진행 지원, 교통통제 및 주차대책 추진, 위생 및 응급환자 의료지원, 초청항우 관리, 강진 주요 관광지의 체계적 코스 관리 등 해당부서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관광객들이 불편 사항을 겪지 않도록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서, 한전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다중 이용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완도군은 지난 4일 추석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 이용시설(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완도군청과 해남소방서 완도119안전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보안관 등 15여 명이 참석하여 시설, 소방, 전기, 가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시 발견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현지 시정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까지 보수·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추석 연휴 종합 대책 추진

진도군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6일 진도군에 따르면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군민들과 귀성객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0개 반, 1일 26명씩 분야별 맞춤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생활민원 처리반 외 9개 반을 편성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건소는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진료기관 35개소 등과 비상의료체계 구축으로 진료 공백을 방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소 진료는 추석 연휴기간 내내 실시할 예정이며, 진도 한국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중 운영하 는 약국은 진도군청(☎061-540-3996) 또는 보건소(☎061-540-6006)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조상용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